

한진그룹 오너 일가 갑질 논란 한달째... 어디까지 확산될까

물컵 갑질서 시작... 이명희 이사장 폭행 및 오너 일가 밀수·탈세 의혹 대한항공 직원들 1차 촛불집회 이어 2~3차 오너 일가 퇴진요구 집회 예정

지난달 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부터 비롯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 수사로 확대됐다. 여기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공학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그동안 밀수와 탈세를 저질렀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도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2~3차 촛불집회를 통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외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 관세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법처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탈세, 밀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이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 현지에서 구매한 면세 물품 합산 가격이 600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이런 과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련된 이들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차권에서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재발 방지 법안을 내놓거나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일 사용자의 폭행 외에 폭언, 협박, 위협 등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명희 이사장이 트리온 무역이라는 업체를 이용해 기내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향후에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 사정당국의 조사 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근절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2, 3차 촛불집회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탈세와 밀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조양호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STOP 촛불집회'에 저항을 상징하는 벤데타 가건과 선글라스를 끼고 참석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이 인제중 결단을 내릴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한편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조 전 전무가 SNS를 통해 사과한 뒤 휴가를 떠나 비난을 자초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사건을 두 달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지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퇴진을 포함한 수습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엔 동생... 현아·현민 자매의 반복되는 '대국민 사과'

갑질 논란으로 최근 한 달간 여론을 공분케 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언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지 약 4년 만이다.

여론의 질타가 거센 가운데 조현민씨는 2014년 당시의 조 전 부사장처럼 수수한 검정 옷을 입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대국민 사과 장면을 반복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

러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조사가 예정된 10시 정각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예쿠스 차량에서 내린 조씨

언니 조현아, 2014년 '땅콩회항'으로 사과
동생 조현민, '물컵 갑질'로 경찰 출석 사죄

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시종일관 눈을 내리깔고 땅만 쳐다봤다. 조씨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고 모두 대답했지만 미리 준비한 듯한 사과 발언만

이어졌다. 조씨는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수 뿌린 점을 인정하느냐', '빌렸다고만 했는데, 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닌가', '대한항공 총수일가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총 6차례 '죄송하다'고 답하며 연신 같은 말만 반복했다. 죄인처럼 땅만 바라보며 목이

맨 듯 움푹이는 모습은 2014년의 조 전 부사장과 닮은 꼴이었다. 조씨와 우애가 돈독하다고 알려진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부지검에 연이어 출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른 채 두 손을 공손하게 맞잡은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박정진 당시 사무장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다. 다른 계획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해야 했다. 당시 조씨가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조씨의 소환 조사에 앞서 강서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전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현아·현민 자매를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면피를 위한 행동은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악의의 삶은 없어져야 하고 약자는 피해자로만 남아야 하느냐"며 "현아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